

# 14만 어린이 꿈 품은 '스페이스 브릿지' 순천 랜드마크로 급부상



### 기존 '꿈의다리' 작품 디지털로 변환해 호평 작품 훼손 방지·작품성 영구히 보존 가능해

순천시 '스페이스 브릿지'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7일만에 관람객 2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꿈의다리를 리뉴얼한 '스페이스 브릿지'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에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꿈의다리'는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누수, 탈각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또한 지속적인 야의 노출로 색 바램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작품성 훼손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하는 14만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 브릿지' 내부에 기존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당시 작품에 참여했던 관람객들에게는 본인의 작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10년 전 14만 명 아이들의 꿈 작품을 찾아보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스페이스 브릿지'가 호평을 받는 이유는 '꿈의다리'의 작품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작품 훼손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명칭처럼 아이들의 꿈이 우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날로그적 요소는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했다"며 "지난해 순천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더라도 확 달라진 국가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군, 푸른 찾있과 함께 열리는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이 함께 참여한 풍성한 축제의 장 마련

보성군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 한국차문화공원 주무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열리며 (사)보성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사진 만들기, 풍선아트 등 체험마당과 왕발 릴레이, 협동공 튀기기 등 놀이마당, 녹차 빙수·달고나 만들기, 팝콘 만들기 등 먹거리 부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도전골든벨' 이벤트가 있다. 보성의 대표 특산품인 차(茶)와 보성키위

등을 활용한 차밭 보물찾기, 녹차비누 만들기, 찻그릇·접시 만들기, 키위젤리·초콜릿 만들기 등 보성다향대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체험공간(체험존)도 상설 운영된다. 특히, '도전골든벨'은 초등학교 1명을 포함해 2인 1조로 퀴즈에 참가할 수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골든벨 사전 신청은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보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80팀까지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5일 10시 30분까지 운영 부스에서 20팀까지 가능하다. 도전골든벨에 참여한 어린이 중 1등은 10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2등은 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3등은 30만 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등이 주어진다. 풍성한 어린이날을 위해 관내 청소년 공연팀, 마술·버블팁의 무대가 펼쳐지며,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경품추첨도 진행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아이들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의 희망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즐거운 놀이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기자



## 제23회 광양매화축제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보고회

### 백만 관광객 유치·시내권 관광객 유입 등으로 700여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

광양시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광양매화축제 성과 공유 및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3회 광양매화축제 개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축제 성과를 보고 받고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입장 유료화, 차 없는 거리 등의 혁신적인 전환과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등으로 전국적 이목을 집중시키며 안전한 축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등 축제 5대 전략을 달성했다. 매화랑 1박 2일, 섬진강벚꽃길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축제만 보고 가는 경우형에서 벗어나 머무는 체류형 축제로 발돋움했다.

특히, 개최 기간 백만여 명의 관광객이 광양매화마을을 찾았으며 다압면 상가뿐만 아니라 망덕포구, 광양불고기특화거리 등 시내권까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700여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다만, 광양매화축제 특별교통대책 아래 둔치주차장 대폭 확충, 셔틀버스 운행구간 연장 등 다각적인 개선 전략에도 행사장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시는 입장권 운영방식, 주차장 부족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와 신속한 관광수용태세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직원 모두가 집단지성을 발휘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정체성과 고유성을 갖춘 축제콘텐츠와 세련된 관광수용태세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고흥군, '2024 어린이 우주기자단' 모집... "미션 수행하고 NASA 가자"

### (주)동아사이언스와 협업, 우주시대 어린이 인재 양성 프로젝트

고흥군은 4월부터 '2024 어린이 우주기자단'을 상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 어린이 우주기자단'은 고흥군과 국내 유일의 과학 미디어인 (주)동아사이언스(대표 장경애)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우주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다. 어린이 우주기자단은 초등학교 1~4학년 동아사이언스 팝콘플래닛 홈페이지(<https://press.popcornplanet.co.kr/astro/astronaut/intro>)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어린이는 기자단원으로 등록돼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항

공우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보령 등 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현장 교육과 온오프라인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우주기자단은 첫 오프라인 과제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탐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및 기사를 작성한다. 4개월간 진행되는 다양한 미션 수행 결과 30명이 우주 홍보대사로 선발되고, 오는 9월 중 '우주 앰배서더 페스티벌'에서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3인이 '어린이 우주인'으로 선발되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우주센터를

탐방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공연민 군수는 "미래 우주시대에 어린이들이 우주를 꿈꾸고 우주에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우주기자단 참가 어린이는 발사체와 위성은 물론 우주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주)동아사이언스의 장경애 대표는 "나로우주센터를 품고 있는 고흥군과 함께 어린이 우주기자단을 런칭하게 돼 기쁘다"며 "우주에 대해 상상하며, 꿈의 경계를 우주로 확장 시킬 어린이들을 만나는 순간이 벌써 설렌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